

《Закрытие летнего семестра》

2015년 6월 19일 제 24호

고려주말한글학교 여름 한글 수학을 마쳤다

고려주말한글 학교는 5월 중순에 종강식을 마친 후 곧 여름 한글 수업에 착수한다. 올해도 6월 1일부터 2주간 진행한 하기한글 수학은 요즘 끝났다.

수업을 직접 관찰하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성과적이었다란 평가를 한다. 더구나 한국교육원 이영호 원장님께서 올해 깨끗이 정성껏 수리하시고 잘 갖추어 놓으신 알마티 한국교육원 강의실에서 일하기가 더욱 기분이 좋았다고 말한다.

수업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편성되었었는데 규모있게 알뜰히 작성한 일정표에는 단 한국어 수업만이 아니고 이런 학생들의 실증을 덜기 위해 한국어 수업이 외에도 재미나는 여러 가지 놀이수업, 창작수업 시간 즉 예를 들면, 나무쫓각으로 카자흐민족 악기 '둠브라' 및 기타 여러 가지 모양을 깎아 자그마한 작품을 만들기와 맛있는 음식만들기와 같은 어린학생들의 인기를 자아내는 특별 활동 기타 등이 있었다. 특별활동 시간은 아이들에게 정성껏 가르쳐 주신 장정화 초청 교사가 담당했다. 이뿐이 아니라 수업을 시작하자 6월 초에 날씨가 너무나 더워서 무더운 날에는 아주 피곤해보이는 어린이들을 시원한 물가로 실어갔다. 시간표를 적당히 조절해서 2시간 동안 마음껏 시간을 보낸 알마티도시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름답게 장식해 놓은 'HAWAII' 수영장은 학생들의 피곤과 더위를 풀어주고 마음껏 물장난을 하면서 즐겼던 그 날은 아마 그들의 기억에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또한 2주간 많은 활동력으로 고

모님들의 고국 땅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어린이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여름 한글 학교는 일주일에 한번이 아니고 매일 통학하다 보니 한글을 배우는데 있어서 더욱 흥미를 돌리며 더 재미있어하며 또 이해성과 그의 집중력도 훨씬 높아 너무 좋았다. 그러나 고려주말한글 학교 상황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매일 통학할 가능성은 없다.

학부모님들 역시 2주간 하기한글 수업은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면 엘라 세르게예브나 학부모님의 인터뷰에 의하면: 《우리 애는 아침에 일찍 눈만 뜨면 일어나서 한글 학교에 빨리 가야 한다면서 두 말 없이 세수하고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먼저 나섭니다. 수업행정만이 마음에 들뿐이 아니고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선생님들의 정성어린 교사다운 태도가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하였으며 그리고 딸디꼬르간에서 온 하 안톤의 부친 하로만 알렉세예위츠는 "10일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 아들

들도 참석했다. 물론 이 학생들은 그 지역에 있는 한글 학원들에서 우리 고유 한글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학교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알마티고려주말한글 학교에서 진행되는 여름 학교에 등록했다. 이 학생들은 소유하고 있는 한국어 수준이 아직 자랑할만한 정도는 아니어서 복습할 겸 더 배울 겸 알마티고려주말한글 학교에 찾아왔었다고 한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수업이 재미있었고 효과적이었고 특히 오전 간식과 식당에서 먹은 맛있는 국과 밥 또 그 김 기타 여러 가지 먹여진 맛있는 점심식사를 했다. 날마다 바뀌는 친구들과 만족해 하며 여름 한글학교에 다니게 하여 지적하고자하는 아이와 같은 소도시에서 일찍 일어나 자가용을 타는 시간 이상의 민중 수업이 오후 3시 만에 어린이를 차에 태워 달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불편을 느끼면서도 그곳 학부모님들은 어린이들에 대한 진짜 참다운 배려와 열의를 보인데 대해 우리 모두는 참으로 존경스런 감을 느꼈다.



안톤은 너무나 재미있었고 이제 나는 글도 잘 읽게 되었고 또 많은 좋은 친구들과도 사귀어 참 즐거웠다고 아빠에게 말하고는 내년 여름 한글 수업을 한다면 꼭 다시 오겠다고 나와 약속했습니다. 여름 한글 수업을 담당하신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그의 이모저모를 이해한 거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현대식 교수법을 도입하여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하였고 게다가 손수 만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수업 시간에 이용하여 효과적인 수업으로 열정하시

구요

알마티

오늘 딸디꼬르베 도시들에서 고려단오명절을 맞이한 열성자들을 위해 디램이 준비되었다. 베 인덕 (원동에서 온 고려인들이)서 처음 자리잡은 카자흐인민에게 감기념비를 방문할 때 가라따가변에...

№24
2015.6.19

일이 있었다. 손님들 스회장인 동향인 니... 을 지니고 있는 기... 다. 이 행사에 대해 디... 재될 김 보리쓰기자... 자세히 이야기할 것...

크슬오르디

자식들의 애국심, 족의 가치를 보존에 성을 교양함에서 모순한 역할을 논다. 때문르다 카자흐스탄민족성위원회가 형성되었에 소수민족 문화연산연합 대표들, 국가위신이 있는 이상 채들이 축하였다. 얼마오르나에서 있는 세미정과 사라나는 세대한 것이었다.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카자흐스탄민족총부장에 샤나이는 국가...



стр. 5

예술인들의 가족



стр. 8

Мы долгое эхо друг друга...



стр. 14

проходила в здании Библиотеки Пер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и поздравил казахстанцев:

– Хочу от всей души поздравить всех нас с сегодняшним Днем благодарности. Мое предложение о его учреждении прозвучал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XXII сессии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посвященной 20-летию ее создания, когда выступающие люди разных народов стали говорить о благодарности друг другу, казахскому народу, который сам был благодарен, принимал всех людей, и за наше спокойствие и стабильность. И у меня возникла идея, чтобы назначить один день такого согласия 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Идею широко поддержали... В такой период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не забывать добрые дела, возвращать



добро, относиться друг к другу с уважением. Если были обиды, сказаны обидные слова, в этот день можно просить прощения. На выставк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документы о создании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ях и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реплика по вопросам реабилитации жертв массов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о спецпереселенцах, депортированных в Казахстан в 1936-1949 годы. Впервые на выставке экспонируются раскритиченные документы, переданные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хранение Комитетом правовой статистики.

находившиеся ранее под грифом «совершенно секретно» – личные дела иностранных подданных, получивших гражданств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Казахской ССР. День благодарности отмечается в стране впервые и, конечно, традиций празднования еще не сложилось. Президент призвал отмечать праздник особыми акциям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и и помощи близким. Предложив создать специальный Фонд Ассамблеи, через который они могли бы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друг другу. Он указал, что особую ценность имеют акции по расширению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

мых вопросов в каждой области, городе, ауле. Выступающие благодарили друг друга за то, что живут и работают в этой замечательной стране. – На ваш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существуют традиции, которые сжаты с казахстанским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таршему поколению. – сказал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Вячеслав Фомин, представляющий корейский этнос. – Дружба, благодарность, прощение, гарантность – эти добродетели сейчас начинают приобретать все большее челове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Окончатие на стр.

전국 2016년 대학생올림피아드가 성과적으로 끝났다

지구상 어디를 돌론하고 국제문화교류 그리고 국제관계가 발전되면서 각 민족 대표단들과의 교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중본한 교제는 바로 언어 교제다.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경계 - 문화적 교류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결과일 것이다.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어문학 올림피아드는 올해도 있었다. 정각 오전 10시 개막식에서 지도부의 인사말씀이 있는 후 각 언어 분야대로 교실을 찾아 시험실에 들어가 자리를 차지했다. 전국 대학들에서 근 400명이 참가했는데 동양어와 서양어들로 나누어져있는 경쟁이다. 그중에서 한국학참가자들만해

도 근 47명이었는데 키르키스탄 대학들도 함께했다. 해마다 여러번 관찰해 왔는데 수준이 점점 더 좋아짐은 확실하다. 특히 통번역반은 이번에 좀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시험을 봤는데 카자흐말과 러시아말로 동시 통역 및 동시 번역으로 말하기 실력을 검토했다. 여기서 우리 카즈누대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경위했다. 즉 다음렛 지아나와 푸이센베 아이누르들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카즈누대 3학년생 다음렛 지아나 학생은 대한민국 삼명대 대학원생으로 추천장을 받았다. 들른 우리학교 어문학반 4학년생 자리나, 나제르케, 메루에르트, 카리나와 같은 어문학에 뛰어난 학생들도 경쟁에 참가했는데 운수가 사나웠던가 본다. 참 어렵다고 보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어디로 갈수가 있겠

으며 안심시켰다. 지식이 제일 이지 상장이 문제가 아니다. 미래를 내다 보는 우리는 다 시금 학생들과 꾸준히 학습하면서 앞으로 더 뛰어난 결과를 얻음을 꿈꾸어야 한다. 2016올림피아드에 찾아온 학생들은 시내 구경에 메테우 견학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좋은 기회에 많은 새 친구들과 만나게 됐다. 내년에는 더 잘 준비해서 앞으로 한국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싶다고들 했다.

본사기자



И впереди нас — своя пора выжить и жить.

부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
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정상회담에서 결정되어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남북한의 상호 유익한 협력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남한이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을 제공하며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조성과정에서 성공과 실패를



한 사람들의 수를 제한하였습
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남
한 사람들이 일시에 880명
이상 개성공단에 체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중에 강경한 태
도를 보여 제정한 이념박이 대
통령으로 당선되어 정권을 장
악함에 따라 한반도에 긴장
은 점차 높아져 갔습니다. 북
한은 개성공단을 남한에 가하
는 압력의 지렛대로 이용하려
고 수차 걸쳐 시도하였으나,
남한은 개성공단의 폐쇄가 부

개성공단은 북한에게 적지 않
은 의화수임을 가져왔는데
것이 두 방향으로 국고에 들어
옵니다. 첫째는 임대비와 근로
자의 봉급이고, 둘째는 북한
노동자들이 국가를 위해 <자발
적으로> 헌납하는 금액입니다.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
자들의 월 평균봉급은 70-
80달러인데 노동자들은 약 30
달러를 손에 쥐게 됩니다. 이
전에는 봉급을 1년에 한번 인
상하였는데 금년에 북한은 거
의 반년동안 작업이 중지되었
는데 반점을 고려하여 북한 노동자
들에게 5%씩 두 번 인상할 것
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
한 측은 원래 대로 1년에 한번
인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한 결과 3
개월 앞당겨 인상하기로 결정
하였는데 이것은 양측 모두에
게 적합하였습니다.

개성공단은 지난해 12월
생산을 다시 시작한 후 최초로
계획된 생산량을 거의 달성하
였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공장들이 12월에 생산한 제품
의 총 액수가 3,529만 달러
에 이르렀는데 이는 2년 전 지

남한이 북한의 특별경
대인 <나진-선봉>에 새
단지를 설립할 가능성이
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
새 공단 조성은 한민족의
을 위한 남북한 협력의
새롭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
그러면 이미 협정에 서
세 번째 프로젝트는 어떤
에 있는가? 필자는 남북한
도연결 사업을 염두에 두고
습니다. 다음 호에서 이에
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카자흐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추석

한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
위를 맞은 지난 8일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동방학부 한국학과
에서도 '추석맞이축제'가 학
과 교수 학생 등 50여명이 참
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대학과 최미옥 교수가 품계 추
복을 차려 입고 학생들에게 추
석의 유래의 의미에 대해 설명
하는 시간을 가졌다. 멀리 떨어진
져 지내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
여 뭍살로 송편을 만들어 나눠
먹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추석의 전통을 소개하고 학생들
과 강강수월패를 함께 추는 흥
겨운 시간이 이어졌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 참가한 1학년 신입
학생들은 처음 맞으며 송편의 맛
에 신기해 하며 강강수월패를
배우고 한복을 직접 입어보는
등 이날 추석맞이 축제에 즐거
운 한때를 보냈다. 한편, "글

Образок Праздник "Чылок".
непонимая

개성공단은 북한에게 적지 않
은 의화수임을 가져왔는데
것이 두 방향으로 국고에 들어
옵니다. 첫째는 임대비와 근로
자의 봉급이고, 둘째는 북한
노동자들이 국가를 위해 <자발
적으로> 헌납하는 금액입니다.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
자들의 월 평균봉급은 70-
80달러인데 노동자들은 약 30
달러를 손에 쥐게 됩니다. 이
전에는 봉급을 1년에 한번 인
상하였는데 금년에 북한은 거
의 반년동안 작업이 중지되었
는데 반점을 고려하여 북한 노동자
들에게 5%씩 두 번 인상할 것
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
한 측은 원래 대로 1년에 한번
인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한 결과 3
개월 앞당겨 인상하기로 결정
하였는데 이것은 양측 모두에
게 적합하였습니다.

개성공단은 지난해 12월
생산을 다시 시작한 후 최초로
계획된 생산량을 거의 달성하
였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공장들이 12월에 생산한 제품
의 총 액수가 3,529만 달러
에 이르렀는데 이는 2년 전 지

개성공단의 폐쇄

개성공단은 지난해 12월
생산을 다시 시작한 후 최초로
계획된 생산량을 거의 달성하
였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공장들이 12월에 생산한 제품
의 총 액수가 3,529만 달러
에 이르렀는데 이는 2년 전 지

Образок Праздник "Чылок".
непонимая



Образок Праздник "Чылок".
непонимая

Встреча в кафе
05.09.2015
Встреча в кафе
05.09.2015
Встреча в кафе
05.09.2015

가 하늘높이에서 메아리로 들려 오라>

양심과 명예의 교훈

동향인들은 집회가 끝난후에 학교로 발걸음을 돌렸다. 여기에서 추억의 수업이 있었다. 학교의 문턱을 넘어서자 마자 추억에 대한 고상한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벽에는 방 니콜라이의와노워츠에 대한 심급반 학생들의 작문이 나 붙여 있었고 강담에는 그의 큰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학생들의 작문은 내용이 깊고 감동적이었다 - 그들은 이

동산의료원...카자흐스탄 고

제명대학교 권배)이 카자흐스탄을 시지 특별한 봉사활동으로 동산의료원 9일부터 17일까지 동산병원에서 지인들을 상담 진료를 펼친다. 도인 아스타나 립 제2병원에서 행할 예정이다

알마티에서 의료진성춘 우슈토베를 방문해 당 노, 콜레스테롤, B형간염 검사 을 실시하고, 청년센터에 다량의 구 금의약품도 전달한다.

우슈토베는 1987년 스탈린에 의 해 러시아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된 17만여명의 고려인들이 토굴을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이다. 고려인 들은 불모지 벌판이었던 이곳을 옥 토로 바꾸며 마을로 발전시켰고, 현재 약 2만4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우슈토베는 초기 정착시 수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극복하

지도하에 얼마나 좋은 일을 많 이 해 놓았는가를 동향인들이 오늘 회상했습니다. 실지에 있 어 이 곳의 땅은 생기를 줍니다. 이 땅에서 수확고가 높은 알곡과 사료작물이 자랍니다. 그런데 다른 편으로는 형상적으로 밑에서 선량한 사람들의 착 습이 있습니다. 보사이코프의 명예 자, 능촌인테리의 여러 세대 가 자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 기에서는 광과 운명이 슬롭니 다! 포린시대에 온 나라에 명성은 이미 보도한바와 같이 <고려일보>는 한반도 해방 70주년에 즈음하여 <한반 도 해방절의 의의>라는 테마로 금년에 독자들 사이에서 미니-에세이 붐을 광 포했다. 공물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상자들이 확정되어 지난 화요일에 한국 관에서 수상식이 있었다. <고려일보> 김 끈쓰판진 주필은 수상자들이 한반도 해 방의 역사적, 사상적 의의를 기록하고 그것을 구체적 실례로 확보하였다고 말 하였다.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 부회장 오 켈르게이 젠나지예우츠는 공물에 적 극 참가한 수상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투고해 달라고 부탁하

고 감동적이었다 - 그들은 이

Agrenovs ansomaz
Muzeyev muzeyev konnyev
Agrenov 2015
2015.11.16
2015.2

대를 표명했다. 오늘의 행사에 이르러 이 책을 재판하여 모인 사람들이께 선사하였다. 책의 페이지들에는 엘시체핀카의 년대기가 기록되었다. 보통 근 노자들, 전문가들, 고문서 보관 자, 시인을 비롯하여 저자가 16 명이다.

수도의 원로협회 회장 아만 켈의 함시노워츠 식즈디코브가 폐회사를 하면서 자기의 친구이 며 지도자인 니콜라이 이와노워 츠에 대해 정을 담아 회상하였 다. 그는 양회장의 뜻을 수 없 으다. 그는 양회장의 뜻을 수 없 으다. 그는 양회장의 뜻을 수 없 으다.

한국관에서서 공물 수상자들을 환영

였다. 공물의 순위는 아래와 같이 확정 되었다.

- 한글판**
 - 일등상 - 김종훈
 - 이등상 - 최미옥
 - 삼등상 - 황 워포르 세묘노위츠
- 러문판**
 - 일등상 - 김 이리나 끈쓰판제노브나
 - 이등상 - 플로샤이 엘레나 블라지미 로브나
 - 삼등상 - 김 스웨플라나 니콜라에 로브나



A. Muzeyev muzeyev

141

Agrenov ansomaz

НОВОСТИ ФИЛИАЛОВ

Успенском районе

Казах- торые весьма популярны в Ка
есных, захстане,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по
атель- знаком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олс
и обла- дежного крыла, которые испо
рского нили любимую песню из по
мы «Зимняя соната»
ла большую



60 лет. Как мы живем

60년을 하루 같이 살아온 부부

소수민족 생활

구소련 10년째 의무교육 시기에 이 두 분은 교육 기관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고 교육교양자들로 몰두하여 왔다. 그러면 교사란 어떤 사람일까?

가진 지식을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전달하며 그들에게 생활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 주며 미성년들을 사회의 정당한 길로 인도하는 고상한 직업을 갖고 있는 교육자다.

이는 어려운 직업에서 난관을 극복하며 자기를 헌신하는 교육 인격자를 의미함이다. 바로 이 두 분이 교육인격자다.

최미옥

You'll be OK

이렇게 오랜 시일을 교육 교양사업에서 일생을 보내신 두 분은 현재 편안한 연금 생활을 하고 있다.

팔순 고개가 넘으신 존경스러운 현 니나 제렌찌에브나

는 아직도 정정하시며 1991년에 알마티민족문화센터와 한국교육원이 협력하여 설립한 "고향" 합창단에 가입하여 아직도 여전히 건강한 몸으로 빠짐없이 다니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그는 자택에서부터 무척 머나먼 곳에 위

치하고있는 수영장에도 버스를 타고 다니시면서 건강을 유지하며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니나 제렌찌에브나는 예전에 많은 고려인들과 마찬가지로 스탈린정책으로 말미암아 세 살 때 부모님들을 따라 원동에서 타지로 떠나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는 식구가 딸의 꼬르간시에 머무러 있다가 나중에 부모님들을 따라 타슈켄트 지역으로 이주해 왔다. 아빠는 일찍 별세했으나 그래도 어머니는 오래 앉아 계신 셈이다. 자리 잡은 그 곳에서 십년제를 졸업하고 타슈켄트외대에 입학했다. 그 대학에서 우연히 염 니콜라이 블라

지미로비츠를 만나 사귀게 되었다. 그 당시 니콜라이 블라지미로비츠는 대학 5학년생이라 곧 졸업하게 되었다. 졸업장을 받은 니콜라이 청년은 1955년에 호레즘구역 조선골호즈 조선학교에 배치받아 교편을 잡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동안 니나 제렌찌에브나는 계속 니콜라이 청년과 편지 연락을 하였으며 날이 갈수록 그들의 인연은 깊어갔다. 니나 제렌찌에브나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을 졸업하고 니콜라이 청년과 결혼하고 두 분은 같이 중치르치구역 "세베르니 마약" 학교에서 그들의 전공 과목인 외국어를 가르치었다.

(계 8면에 계속)

를 만나 사귀게 되었다. 당시 니콜라이 블라지미로비츠는 대학 5학년생 졸업하게 되었다. 졸업장을 받은 니콜라이 청년은 1955년에 호레즘구역 조선학교에 배치받아 졸업 일을 시작하게

동안 니나 제렌찌에브나는 계속 니콜라이 청년과 편지 연락을 하였으며 날이 갈수록 그들의 인연은 깊어갔다. 니나 제렌찌에브나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을 졸업하고 니콜라이 청년과 결혼한 두 분은 같이 중치르치구역 "세베르니 마약" 학교에서 그들의 전공 과목인 외국어를 가르치었다.

(계 8면에 계속)

스려운 현 니나 제렌찌에브나

You'll be OK No 44. on 6 Nov 2015

아스타나



Заголовок статьи
{ Успешно завершился семинар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в двух страничках)

1-2. продолжение на 7-й странице
Уфкин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 да владеют в дос орейским и ангий - Именно такие аправлены на боль конструктивное с т отметить, что Ка тромный потенциа изнеса. внедрения шпимает одно из ззиций среди стра ответном слове в ссоциации корей ергей Огай. - Каз

23

Палее состоялось знакомство дый из ко- тие о соб- диально в прибыли племени- зарубежья и Кыргыз- дии, члены ставлены в ятельность- в промыш- чуть менее овле, дру-

Казахстана пройдет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 ЭКСПО. И м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предлагаем провести очередное заседание именно в Астане в рамках этого глобального события, на которое съедутся бизнесмены со всего мира, - сказал Сергей Огай.
По завершении официальной части, в неформа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е участники обсудили множество общих тем для продуктивного общения, коих, думается, нашлось немало.

достаточно неплохими, сообще- рейцы добились р

2015년 하기 교사세미나가 성과 적으로 끝났다

지난 7월 13일부터 17 일까 지 재외동포재단 후원하에 실 시된 카자흐스탄 전국 한글학 교 201년 하기교사세미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연수 목적은 첫째로 현지 고령인 한 국어 교사 (대학 강사)의 한국 어 능력 및 교수법 향상이며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재 활용 법 관련 한글학교 교사 간 호 상 정보 교환이고 한국 문화, 역사 및 경제 발전상과 국제 사회의 한국 위상에 대한 이해 등등이다.

카자흐스탄 각 지역들에서 근 30 명 이상의 한글학교 교사들이 알마티한국교육원에 서 있는 하기 교사세미나에 모 였다. 카자흐스탄 광활한 지역

들에서 모여온 교사들은 알마 티한국교육원 김종일 원장님 께서 잘 수리해 놓았으며 교사 들이 잘 읽수 있고 수업할 수 있도록 은갖 편의시설을 마련 해 주신 덕분에 무엇이나 마 음껏 이용할 수 있어 편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재외동포 재단 후원을 받아 알마티한국 교육원에서 짜임새있고 알뜰 하게 조직한 효과적이고 재미 있는 연수를 지적하고 싶다. 모두가 아시다 싶이 올해 이 무더운 한 여름에 고이 앉아서 강의만을 듣는 다는 것이 너무 나도 힘들었는데 강의 담당 교 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번 세미나에는 대한민국 경희 사이버대학교 한국어 문화학

과 장미라 교수님 그리고 카자 호국립대 동방학부 이병조 역 사교수님 및 알마티 한국교육 원 컴퓨터 담당 강동희실장님 들께서 더위를 무릅쓰면서 새 름고 또 재미있는 <디지털 매 체 활용법 교육>강의 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았다.

경희대 교수님께서는 이쪽 카자흐스탄 한글학교 교사들은 어떤 교수방법을 사용하며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 몹시 궁금해 하였다. 그리고 초급반 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쓰기는 어떤 상태 에 있는지가 또한 궁금했으며 말하기 발표 준비, 교실내 온라 인은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것 에 또한 관심이 있었다. 우리

선생님들이 선호하거나 활용해 보고 싶은 블랜드드 러닝은 어 떤 방식인가를 알고 싶어했고 카자흐스탄 현지 교사가 기관에 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를 기 반으로 개발된 온라인 한국어강 의가 있다면 이를 한국어 수업 에 어떻게 활용하는 지를 의논 했다. 여러 가지에 관한 재미있 는 수업강의중 한국어 교수법 도 그러하다.

조사나 동사의 변화를 몰 라서 연수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과정을 어 떻게 수강생들에게 새로운 교 수법으로 전달하는지 또 어떤 새로운 뭔가를 기대하는 좋 은 시간이었다.

(제 7면에 계속)

И у пчел есть законы / 벌에게도 법이 있다.

{ Успешно завершился семинар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 языка }
продолжение

Песня - душа народа



стр. 13

№ 23 от 24 июля 2015

올해 8월 15일이면 고려인 가수 빅토르 초이(崔) 사망 25주
 년으로 진실적인 음악가의 청동상을 러시아 수도로 들어올 예정
 이라고 조각가 알렉세이 블라고베스트노프가 전했다.

청동 기념비는 5년 전에 제작됐고, 현재는 상트페테르스부르
 그에 보관되어 있다고 이즈베스티아가 적고 있다. "빅토르 초이
 의 미망인 마리야나 초이가 기념비 설립전에 승인했다. 빅토르
 초이 기념비가 제작리를 찾았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많은 세대를
 거쳐 최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고 블라고베스트노프가 말했다.
 모스크바 의회 기념에슬위원회 의장 데프 라브레노프는 5년
 전에 빅토르 초이 청동상 설립권이 채택됐고 현재도 그 결정은 여
 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 당시 지역 주민들이 기념비 설치에
 불만을 제기했고 그로 인해 기념비 설립이 중단됐었다.

한반도 해방 70주년에 즈음하여 <한반도 해방절의 의의>라는 테마로 2015년에 미니-에세이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모 참가 조건
 공모에는 희망자가 모두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2015년 9월 1일까지 미니-에세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모에 제출하는 미니-에세이에 대한 요구:
 -에세이는 Times New Roman 12 활자로
 쳐서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양은 공백이 없이 3000-5000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청자 한 명이 작품 하나만 보낼 수 있습니다.

평가의 표준
 작품은 테마에 꼭 맞아야 합니다.
 창작품에는 한반도 해방의 역사적, 사상적 의의가
 반영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실례도 들어가야 합니다.
 작품의 문장체도 평가할 것입니다.

공모진행 단계
 공모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 - 작품진수;
 둘째 단계 - 작품심의와 승리자 확정;
 셋째 단계 - 승리자 수상식.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시오
 키자호스스탄공화국 050002, 알마티시, 고팔리거리 2번지
 전화: 7(727) 291 57 53,
 e-mail: gazeta.koreilbo@gmail.com

공화국 신문 <고려일보> 김
 홍주필
 편집
 김
 민소판
 편집

...이 끝난 후에 포
 롭기자들은 자유로운 분위
 기에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테마들을 토의했는데 그런 테
 마는 적지 않았다.

나 하기 교사세미나가 성과적으로 끝났다

(제 1편의 계속)
 려 시대, 조선 시대, 일제 강
 점기, 대한민국 시대... 역사를
 설명하면서 강의하실 때 영상,
 사진 등 시각 자료를 많이 사용
 하여 이해하기가 쉬웠고 효과적
 인 수업이 되었고 참으로 감동
 적이었다.

물론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
 거에 일어난 여러 사실들을 알
 므로 해서 오늘의 현실을 객관
 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오늘의 한국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한민족의 뿌리에서 오늘
 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발전 과
 정을 알아야 함을 재미있게 전
 달했다. 우리 역사 선생님들도
 이런 교수법을 도입하면 좋을
 거라 본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수업이 실
 행되었으며 컴퓨터 기술을 도입
 하였다. 역시 현대 기술을 도입
 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토요한글
 학교, 알마티주말한글학교, 무
 공화 학교 선생님들과 대학교
 교수들과 진극에서 온 젊은 교
 사들이 함께 강의에 참여했
 다. 7월 중순에 열린 2015
 년 교사연수 개강식에서 김중
 일 원장님은 <이 무더운 여
 림이나마 좋은 교수님들의 강
 의를 빠진 없이 들어 주시기
 바라다>며 연수 프로그램이 실
 행된다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
 면 하마 연수에 참여하였으
 석하신 교사 이리
 분께 감사사를 표한
 다>고 하였다. 그
 리고 필자는 이번
 행사에 많은 수고
 를 한 교육원 선생
 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보내는 바
 이다.
 교사세미나 중
 강
 식에서 참석자들에
 게 수료증을 내주셨
 으며 앞으로 기념
 사진을 찍었다.



최미옥
 You are all
 all

Октябрьские Celebrations